

도, 한라산 예약제 유보·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유보·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코로나19' 피해 극복대책 실효성 논란

관광업계 "대책 남발보단 실질적인 대안 필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 관광업계를 위해 대책이 잇따라 나오고 있지만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1일부터 시행된 탐방예약제를 13일부터 유보, 사전 예약을 하지 않아도 한라산을 탐방할 수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불안감으로 인해 제주 실물경제 위기가 현실화됨에 따라 제주도가 내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다.

유보 기간은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고, 제주 경제에 큰 영향이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다. 이 기간 제주도는 탐방예약제에 대한 제도 보완 작업에 착수하는데, 예약을 해놓고 취소 등의 연락 없이 나타나지 않은 탐방객에 대한 패널티 부여를 논의키로 했다. 또한 이러한 행위로 피해를 보는 탐방객이 없도록 시간대별 탐방예약제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러 제주도는 오는 4월 1일 도입

하려던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계획도 유보하기로 했다. 해당 계획은 기존 계도(1차)·경고(2차)·과태료 부과(3차)로 이뤄지던 것을 1차 위반시 곧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아울러 제주도가 직영하는 유료 공영주차장 36개소에 대한 요금도 한시적으로 50% 감면된다. 이에 무료주차 시간이 현행 30분에서 1시간으로 확대되고, 기본요금도 1000원에서 500원으로, 15분 초과 시 500원에서 250원으로 감면된다.

하지만 이러한 대책이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도내 관광업계 관계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으면 관광객이 찾아온다는 논리는 이해 되지 않는다"며 "대책을 남발하는 것보다 금융지원이나 도민 소비 촉진 등 위기를 극복하고 버틸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일부터 11일까지 제주 입도객은 15만653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0만4566명과 대비 48.6%(14만8036명) 급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송은범기자 seb119@ihalla.com

환경연합 "당산봉 정비공사 감사결과는 제식구 감싸기"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2일 제주도감사위원회의 당산봉 급경사지 정비공사에 대한 조사결과와 관련 "사업의 신뢰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었음은 확인됐지만 특별한 문제제기 없이 주의통보만 내리며 '제 식구 감싸기'라는 논란을 낳고 있는 점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조사청구의 핵심은 ▷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설명 없이 공사가 이뤄졌던 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려 했다는 의혹 ▷편입토지 감정가가 부풀려지고 불법건축물이 묵인되는 등 특정인에 대한 특혜 등 3가지"라며 "그러나 도감사위원회는 의견수렴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꼬집었다. 김현석기자



비 내린 날, 만개한 매화. 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린 12일 제주시 오라동 한 주택 정원에 매화가 활짝 피어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강희만기자

제주해녀 10명중 6명 '70세 이상'

2019년 말 기준 총 3820명... 1년새 78명 줄어

제주 해녀들이 고령화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70세 이상 고령해녀의 비율이 전체 해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시를 통해 해녀 현황을 파악한 결과 현재 물질을 하는 해녀는 2019년 말 기준 3820명으로 조사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2018년 기준 3898명보다 78명 감소한 것이다.

고령화 및 질병으로 인한 조업포

기, 사망 등으로 162명이 줄었지만 해녀학교 수료자 신규 가입, 기존해녀 물질 재개 등으로 84명 증가했다.

행정시별로 살펴보면 도내 해녀수의 58.7%인 2241명을 차지하고 있는 제주시는 2018년(2269명) 대비 28명 줄었다. 서귀포시는 1579명으로 2018년(1629명) 대비 50명 감소했다.

연령별로는 30세 미만이 6명, 30~49세 83명, 50~69세 1496명, 70세 이상 고령자는 2235명으로서 전체

해녀의 58.5%를 차지하고 있다.

최고령 해녀는 올해 98세인 마라도 출신 라모씨로 82년의 경력을 갖고 있다. 최연소는 24세인 대정읍의 정모(경력 3년)씨다.

한편 제주도는 해녀어업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신규해녀 진입을 원활히 하기 위해 해녀진로비 지원, 고령해녀 소득보전수당 지원, 신규해녀 정착금 지원 등을 하고 있다. 더불어 해녀들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위해 소라가격 안정 지원대책도 추진하고 있다.

오은지기자 eioh@ihalla.com

예년보다 겨울잠 빨리 깬 '제주도롱뇽'

1월 10일 산란 확인... 평년보다 한달가량 앞서

국립산림과학원 모니터링

법정보호종(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인 제주도롱뇽이 예년보다 빨리 겨울잠에서 깨어났다. >>> 사진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는 제주지역의 산림생태계 계절 변화를 모니터링한 결과, 1월 10일 서귀포시 한남리 지역 습지에서 산란 후 알을 지키고 있는 제주도롱뇽을 발견했다고 12일 밝혔다.

국립산림과학원이 2008년부터 제주도롱뇽의 산란 시기를 조사한 결과 일반적으로 1월 말에서 2월 초에 산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올해는 평년보다 일찍 동면에서 깨어나 산란한 것으로, 산란 시기가 가장 늦었던 2011년(2월 26일)과 비교하면 무려 한 달 반이나 일찍 산란한 것이다.

구체적인 산란시기를 보면 2008년 1월 27일, 2009년 2월 2일, 2016년 2월 1일, 올해 1월 10일로 제주도롱뇽의 산란 시기는



점차 빨라지는 경향을 보인다.

한편 일반적으로 내륙지역에 서식하는 도롱뇽은 경칩(3월 5일경) 전후에 산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는 과거에 비해 따뜻했던 올해 겨울 기온이 이른 산란으로 이어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귀포시 한남리 지역의 올해 겨울(12월~1월) 월별 평균기온을 조사한 결과 최근 12월의 평균 기온은 10.6°C로 40년 평균 9.1°C보다 1.5°C가 더 높았으며, 올해 1월 평균기온은 9.4°C로 같은 기간 6.9°C보다 무려 2.5°C 높았다. 고대모기자

3월부터 액화천연가스 공급 시작

도, 에월항 LNG 기지·저장탱크 최종준공 승인

3만2000가구 우선 공급 2029년까지 15만가구 계획

에월항 LNG기지 및 저장탱크 건설공사가 최종 준공 승인되면서 다음 달부터 도내 약 3만여 가구에 도시가스용 LNG(액화천연가스)가 우선 공급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에월항 LNG기지 및 저장탱크 건설공사가 지난해 12월 완료됨에 따라 관계기관 분야별 사용승인과 현지 확인을 거쳐 지난 1월 31일자로 최종 준공 승인했다고 12일 밝혔다.

에월LNG기지는 한국가스공사에서 지난 2017년 1월부터 3년간 비관리청 항만공사로 시행해 제주시 에월항 일원 7만4824㎡(2만2634평) 부지에 총 2911억원을 투자해 지상식 저장탱크 9만㎥(4.5만㎥×2기), LNG하역설비, 변전시설, 통합관리 등 등의 시설물을 갖췄다.

한국가스공사는 LNG가스는 경상남도 통영LNG기지에서 액화천연가스를 공급받아 에월LNG기지로 운송해 액체상태로 저장했다가 기화작업을 거쳐 도내에 연간 도시가스용 12만t, 발전용 23만t 등 총 35만t을 공급할 계획이다.

도시가스용 LNG는 현재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는 제주시·서귀포시 지역 약 3만2000가구에 기존 도시가스 배관을 이용해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우선으로 제주도·한국가스공사·제주도시가스 간 협의가 마무리되는 오는 3월부터 공급이 시작된다. 이후 2029년까지 약 15만8000가구에 공급범위를 확대해 LNG보급률을 57%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발전용은 현재 삼양복합발전소와 한림복합발전소 2곳에 공급되고 있다. 화순복합발전소는 발전소 건설공사가 완료되는 2021년 12월부터 공급될 예정이다. 오은지기자

독자제보 750-2232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영사랑으로

40년 전통 연구 개발 창업자

회장 강철만

대한민국 대표방수제 **친환경 칠만표방수제** 누구나 칠만하면 **장기간 100% 방수**

KCC 페인트 제주대리점

컴퓨터 자동시스템(조색기) 구비

강력접착방수제

특징: 통기성 (공기는 통해도 물은 들어가지 않는) 이 있어 들뜨지 않습니다.

용도: 모든 콘크리트 건축물 일절 (옥상, 외벽)

※ 소비자가 인정하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수제

한번 칠하면 100% 방수되고 오래가는 칠만표 수용성 방수페인트

특징: 강한 접착력은 들뜸이 없고 부식이 안돼 장기간 미관유지 (시간절약, 비용절약)

용도: 드라이비트 및 콘크리트외벽 (주택, 아파트, 빌라, 펜션, 호텔, 상가 등)

타일면, 벽돌면, 스톤면

※ 세찬 비바람과 비가 자주오는 제주 주택에, 특히 드라이비트 외벽에 참 좋습니다.

드라이비트벽: 성지오양원, 타일면: 이도아구점빌딩

싱글 지붕용 탄성도막방수제

노형 워터스틸라 12차, 미건빌라

자외선에 쬐(부식)아 있는 싱글 지붕에 칠하면 100% 방수되고 단단한 새 지붕으로 바뀝니다.

최고급 벽난로 판매

100% 스텐연통 설치

무동력 펠릿+화목겸용

초기점화 30초내

종류: 장작용, 정원용, 캠핑용 벽난로

★ 주요생산물 : 녹/회색 접착방수제, 황토방수제, 균열보수제, 모체강화제, 수용성침투성방수제(발수제), 타일풀는방수제, 결로방수제, 고농축완결방수제, 급결지수제, 우레탄류

방수 백화점 금강종합건설 **KCC 페인트** · 칠만표방수제 · (주)대화정밀 · 현대공구 · 난로세상 제주대리점 T. 752-8209, 758-8209, F. 753-8209 **※모방품주의바랍니다.**